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7, Vol. 19 No. 3, 587-6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이 은 경　　양 난 미†　　서 은 경

가톨릭의대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상담실무를 담당하는 상담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실무를 10년 이상 30년 이하 진행하고 현재 주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자격증을 소지한지 5년 이상 경과한 상담심리전문가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8명이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상담자를 찾아오게 되고, 상담과정 중 '상담자의 온전한 이해, 공감 및 받아들여지는 경험'과 '자기문제의 실체파악을 통한 인식전환'을 통해 변화된다고 응답하였다. 내담자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자는 '정서적으로 버텨나가게 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인격과 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적 상담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상담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한국 문화적 측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존적이고 답을 구하려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눈치 봐야 하는 집단문화를 꼽았고, 상담에서 드러나는 주 호소문제는 관계문화로 인한 혼란이라 지적하였다. 한국적 상담이라는 용어의 사용에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내담자들이 기대하는 한국 상담자의 역할과 전문성, 상담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주요어 : 한국에서의 상담, 한국적 상담, 문화적 차이, 질적 분석

---

† 교신저자 : 양난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11-1
E-mail : ynm0625@ewha.ac.kr

www.kci.go.kr

최근 우리나라에서 상담은 학문적, 직업적, 혹은 수요 면에서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상담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도입된 것은 1957년 미국 교육사절단의 카운슬링 워크샵 및 교도교사 연수회였고(이형득, 1992), 1962년 서울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이동식, 1994)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지도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대학교에서 상담과 상담자 양성 및 교육이 활성화되었다(장성숙, 1999). 우리나라에 상담이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 전문상담자, 상담기관이나 상담센터의 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일례로 1987년 한국심리학회에서 임상분과와 분리되어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 학회로 발족한 이후 배출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은 2007년 현재 상담심리전문가 1급이 453명, 상담심리전문가 2급은 1,332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회원수 역시 5천명에 근접하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07). 이와 함께 대학상담센터 뿐만 아니라 국공립 청소년상담기관도 많이 늘어나, 1993년도 24개소에 불과했으나, 2005년 4월 136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가 설립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이렇듯 상담전문가나 상담센터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밑바탕에는 일반인의 상담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자리하고 있다. 전문분야로서 상담의 입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그 역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학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의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담에 대한 학문적 논의 역시 상담의 효과적인 과정과 결과 변인 뿐만 아니라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 역할, 토착화된 모형을 찾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효과적인 상담을 강조한 김창대(1994)의 연구, 205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담자들의 상담윤리에 대해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한 최해림(2002)의 연구, 한국 상담전문가의 직무를 5개 영역으로 나누어 175명의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최윤미(2003)의 연구, 한국 심리치료자들의 특성을 전문적 특성, 실무적 특성, 치료자 변인들을 중심으로 서구의 심리치료자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주은선, Bae와 Orlinsky(2003)의 연구,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유성경(2005)의 연구, 최근 들어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한 최해림과 김영혜(2006)의 연구 그리고 직접적으로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한국적 상담이론을 고찰해본 이미선(1997)의 연구와 비교문화적 접근을 포함한 대표적인 동양사상을 종합하여 한국적 상담이론을 탐색적으로 정립해보려 시도한 홍희기(2002)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상담자 윤리, 상담자의 역할, 상담자의 특성, 상담의 대상인 대학생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와 기대, 한국에서의 상담자 교육, 한국적 상담이론 등 다각적 측면에서 현재 한국에서의 상담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상담자 교육과 관련하여 각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최해림과 김영혜(2006)의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상담교육의 효과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언급하고 있어 추후 보다 토

www.kci.go.kr

착화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직접적으로 한국적 상담이론을 모색해보려는 연구(이미선, 1997; 홍희기, 2002)를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적 상담 모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성경, 2005; 주은선 Bae & Orlinsky, 2003).

토착화(土着化)된 상담모델의 형성을 위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동안 있어 왔던 쟁점의 주요 골자는 동서의 문화를 하나로 보자는 '문화적 보편주의'(범문화주의) 관점과 인류의 기본적 고유성격에 기초한 어떠한 절대주의적 접근도 상이한 문화권에서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한계성을 노출하게 마련이라고 주장하는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의 대립이다(홍희기, 2002). 문화적 보편주의 관점을 취하는 Stein(1983)은 모든 인간은 인간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공통적이라고 하였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각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상담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는 Murase(1982)는 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치료는 본래적으로 그 사회의 기저하는 문화, 가치관들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내담자가 속한 그 문화에 조화하고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적 상담모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들은 암묵적이지만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문화에 기저하고 있는 유교, 불교, 도교 등과 같은 동양사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상담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었다(윤호균, 1983; 이동식, 1987; 이장호, 김정희, 1989; 장성숙, 1999, 2003).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들로서, 동양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상담모델의 경험적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적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자 혹은 상담자 사이에 일치된 정의가 없다는 점도 논의를 발전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에 앞서 한국적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상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양적이고 질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담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기존 문헌연구들과는 달리 상당한 기간동안 한국 상담현장에서 상담을 해온 상담자들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상담은 무엇이며, 상담경험에서 파악된 한국에서의 상담이 지니고 있는 독특성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의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적 분석 방법을 통해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상담실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에서의 상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담자의 전문성 확립과 상담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적 상담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첫째, 상담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이란 무엇이고, 상담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데 있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둘째,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적 상담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에서의 상담이

www.kci.go.kr

보여주는 독특성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 상담발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한국에서 상담실무 경험이 적어도 10년 이상 30년 이하인 상담자, 둘째, 상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상담자, 셋째, 상담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수료한 상담자, 넷째, 대학상담실에서 상담인턴을 대상으로 개인사례지도나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 마지막으로 현재에도 주 1회 이상 개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5명의 상담자 중에서 처음 10명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 중 2명이 거절하여 추가로 2명을 더 선정하여 최종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처음 두 사례는 면접과 평가의 모의자료로 사용하였고 최종 연구대상은 8사례였다.

연구참여자 8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3명, 여성 5명, 평균연령은 46.5세(최소 42세, 최대 53세), 상담 실무경력 평균은 18년 1개월(최소 12년, 최대 25년 8개월), 수퍼비전 경력 평균은 11년 8개월(최소 10년, 최대 19년 10개월), 주요상담 접근은 절충적 상담이 5명, 정신역동상담이 3명이었고, 모두 개인분석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절충적 상담이라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들의 자세한 이론적 입장을 기술하면, 정신역동과 인간중심, 인지행동과 정신역동, 정신역동과 현실요법, 인지행동, 정신역동 그리고 인간중심, 정신역동과 실존주의였다.

도구 및 면접자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

면접을 위한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작성하였다. 이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지로 2회의 예비면접과 분석과정을 거친 후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 질문지는 1) 상담의 정의(상담계기, 변화기제, 상담자역할, 전문성, 궁극적 상담정의, 상담이론과 실제의 차이), 2)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한국적 상담의 차이 3) 한국에서의 상담의 독특성(주요 호소문제, 효과적 상담 접근, 상담자역할), 4) 한국 에서의 상담 발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상담자 경력 질문지

연구참여자들의 인적 사항, 상담에 관련된 경험과 훈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면접자

면접자는 본 연구자들로서 2명은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심리전문가이고, 1명은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생이며 상담심리전문가였다.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면접을 위해 면접자들은 3회에 걸친 오리엔테이션과 협의를 가졌으며, 첫 두 사례 면접은 연구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한 기대와 편견을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기대로는 전문상담자들이 이야기하는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

www.kci.go.kr

이었고, 대표적인 편견으로는 '연구자들 또한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고찰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자료수집 절차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 1급 명단을 대상으로 위의 다섯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예비명단을 25명 확보하였고, 표본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경력이 12년 미만이거나 26년 이상인 사례를 제외하였다. 최종 15명의 명단을 결정하였고 이 중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처음 두 사례는 예비면접으로 진행되었고,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된 자료는 8사례였다. 모든 사례에 대해 연구자들은 개별적으로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면접시간을 약속하였다. 면접실시 1주일에서 3일전에 전자우편을 통해 면접 질문지를 미리 전달하였고, 면접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학교, 연구소나 상담실에서 50~70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면접내용을 녹음하였고, 분석을 위해 축어록으로 작성하였다.

분석 방법

면접자료에서 얻은 축어록은 합의에 의한 질적 분석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통해 분석하였다. Hill, Thopmson과 Williams(1997)이 개발한 CQR은 면접이나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해 얻은 소수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전체맥락과 내용에 따라 범주화하는 방법이다. 평정팀에서는 합의에 의해 결과를 결정하고 이 결과를 감사자가 다시 평정하며 이를 다시 연구팀에서 재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평정자

평정자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로 2명은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심리전문가이고, 1명은 상담심리 전공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는 상담심리전문가였다. 평정자들은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3회에 걸쳐 Hill 등(1997)과 Hill 등(2005)의 논문을 토대로 CQR 절차를 훈련하였으며, 평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사례 2개의 축어록을 대상으로 예비평정을 실시하였다. 예비평정 직후에 평정자들은 개방적인 분석을 위해 다시 한 번 연구에 대한 기대와 편견을 함께 검토하였다.

감사자

감사자는 상담심리 박사학위 소지자로 상담심리전문가이며, 상담경력 24년, 수퍼비전 경력 13년이었다. 감사자는 평정결과인 영역 코딩, 중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4회에 걸쳐 평정팀에게 피이드백을 제공하였다.

절차

자료준비: 면접을 진행하고 총 8사례에 대한 완전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축어록으로 작성된 면접내용에 대해 각각의 연구참여자들에게 확인을 받았으며, 명료화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추가설명을 하도록 하였다.

영역코딩: 각 내용의 범주나 영역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먼저 평정자들이 각 사례에서 독립적으로 영역을 분류한 다음, 함께 모여서 평정자들 간에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

www.kci.go.kr

다. 이 결과 총 12개 영역이 개발되었다.

중심개념 코딩: 영역의 내용을 더 간결한 핵심용어로 요약하는 과정으로 각 평정자들은 독립적으로 축어록을 읽고 중심개념을 요약한 다음 함께 모여서 중심개념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합의하였다.

감사과정: 평정팀이 영역과 중심개념을 합의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자가 원자료를 철저하게 읽고 원자료가 올바른 영역에 들어갔는지, 모든 중요한 자료가 추출되었는지, 중심개념의 단어가 간략하고 원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점검하였다.

교차분석: 각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을 범주화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사례 간에 중심개념의 유사성이 있는지,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묶인 범주에 대해 최종적인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결정된 범주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시하였다. 한 사례를 제외한 7사례와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일반적(general)'으로, 사례의 반 이상에서 나타나는 경우(4~6사례)를 '전형적(typical)'으로, 이보다 적게 나타는 범주(1~3사례)를 '드문(variant)'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연구표본 크기가 12사례 이상의 경우에서는 단지 1-2사례에서만 나타나는 반응은 예외적인 경우로 결과제시에서 제외하게 되는데(Hill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사례가 8개이고 전문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탐색적이고 경험적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1사례인 경우도 제시하였다(양미진, 김영희, 2006).

감사과정: 평점팀이 총 8사례를 교차분석한 결과에 대해 감사자가 검토하고 피이드백을 제공하였다. 피이드백 내용 중 평정팀과 불일치한 부분은 평정팀이 다시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결 과

CQR분석 결과는 면접질문지 구성과 동일하게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세부영역은 12개로 구분하였다. 영역과 그에 대한 범주들 그리고 각 범주의 대표적인 사례내용을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선택하여 사례번호 순으로 인용 제시하였다.

영역별 분석

상담의 정의

「내담자가 상담에 오게 되는 계기」에 대해 내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상담을 찾아온다는 응답이 '일반적(7사례)'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가 부각되는 급박한 때(전형적)', '혼자 힘으로 해결을 못해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전형적)',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가 있을 때(전형적)' 상담에 오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 외 '드문'에 해당되는 반응은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문제가 많지 않다고 확인하고 싶을 때',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을 침해 받을 때', '성장을 위한 긍정적 욕구가 있을 때'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단은 내담자는 어떤 상황, 좀 갈등이 심한 상황 또 뭔가에 대한 Gap에서 그 고통이 좀 큰, 일치가 안 되고 도대체 내가

www.kci.go.kr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문제가 너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내가 문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 모르는 뭔가가 있다면 그걸 좀 알고 싶은, 이런 마음들도 좀 있지 않나. 하여간에 갈등, 고통, 고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1번 사례)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담자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상담자의 온전한 이해, 공감 및 받아들여지는 경험(일반적)'과 '자기문제의 실체파악을 통한 인식전환(일반적)'이 각각 7사례에서 보고되었다. '실제적 문제해결력 획득'은 4사례(전형적)에서, '감정표현과 정화'와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꾸준히 옆에서 조력해주는 만남', '상담과정 속에서 내담자 체험의 변화'가 각각 3사례(전형적)에서 나타났다. 이외에 각각 1사례(드문)에서 '방법이 있다는 희망', '내담자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상담자가 훨씬 많이 아는 것'이 내담자 변화의 원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속에서 상담자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다는거지. 자기이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어떤 뭐 살아가는 모델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자기문제를 지적받으면서도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근데 바탕은 관계라는 거죠."(5번 사례)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일반적(7사례)으로 '정서적으로 버텨나가게 해주는 동반자 역할'이라 보고하였다. '전형적'인 범주로는 '내담자를 이해·공감하는 역할', '내담자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는 역할', '상담자-내담자 관계 안에서 건강한 역할모델'이 있었고, '드문'에 해당되는 범주로는 '내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움의 핵심을 찾는 전문적 역할'과 '내담자를 이뻐해주는 존재'가 있었다.

"상담자의 역할 중에 하나는 내담자가, 어, 힘든 길을 걸어가는 내담자를 혼자 걷지 않게 같이 동행해주는 동반자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따스함도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외롭지도 않게 해주고 힘들 때 에너지도 주고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보고 그 사람의 문제 근원이라든가 그런거에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고 사심없이 그 사람에게 괜찮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8번 사례)

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상담자 전문성」에 대한 상담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우선 '상담자의 인격과 특성'이라는 답변이 7사례(일반적)에서 나타났다. '상담자의 인격과 특성'에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창조성, 예술성, 내담자에 대한 애정, 언어화할 수 있는 감각, 많은 삶의 에너지, 자기인생에 대한 개념화 능력, 자기관리 능력'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5사례)'과 '자기분석, 교육분석(4사례)'이 '전형적'인 범주로 나타났다. '드문'으로 나타난 범주로는 '상담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3사례)', '성공적인 상담경험(3사례)', '상담자로서의 자

www.kci.go.kr

신감(3사례)', '인생문제에 대한 상식, 통찰력(3사례)'이 있었으며, 2사례에서 나타난 전문성 범주는 '잘된 사례공부', '사례개념화 능력'. '인내와 끈기'. '내담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사례에서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에 대한 '대리적 자유연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내담자의 말을 따라들어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 정리되면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게 생겨요. 근데 그거는 쭉 들어오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내담자의 정리해봤던 걸 보고, 딱 그 시점에 맞는 말을 이제 나도 할 수가 있고, 딴 때 하면 말밖에 안되는건데, 그때하면은 정서적으로 충분히 와닿을 수 있는 감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4번 사례)

궁극적으로 상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상담의 정의」를 알아본 결과, '전형적'인 범주로 상담은 '개인의 성장을 조력하는 것',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드문)', '주체적 자기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드문)', '행복찾기를 조력하는 것(드문)', '의논하고 교육하는 것(드문)', '힘든 과정적 학습(드문)'으로 정의하였다.

"좀 성숙해지는 과정인데, 일단관계, 상담자-내담자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어... 내담자가 좀 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 현실적으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좀 더 자기가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성장시켜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그런거 같은..."(1번 사례)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서 그,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기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한 상담자와 함께 자기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자기를 이해함으로써 뭔가 변화의 순간을 찾게 되는 것"(5번 사례)

"그렇죠. 마라톤 하다보면 같이 페이스 맞춰주는 이도 있고, 옆에서 박수도 쳐주고, 물도 가끔 마시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기록 잘 안나와도 의미가 없고, 완주했거나 그럴 때는 짜릿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갈등이나 요인이 많이 숨어있는 그런 과정이 상담이다."(8번 사례)

끝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해온 상담이론과 실무에서 경험해온 상담실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5사례에서 나타났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이론을 충분히 소화했다면, 차이가 없다(드문)'는 것과 '충분한 상담경험이 쌓이면, 차이가 없을 것이다(드문)'는 반응이 있었다.

"어느 이론이든 끝까지만 제대로 하면 저는 통할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상담 경험자들이 자기 상담경험을 많이 해가는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이론서를 읽고 이해하는 게 달라질거라고 생각해요."(4번 사례)

www.kci.go.kr

표 1. 상담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들

영역	범주	응답(사례수)
내담자가 상담에 오게 되는 계기	•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일반적(7)
	• 문제가 부각되는 급박한 때	전형적(5)
	• 혼자 힘으로 해결을 못해서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전형적(5)
	•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가 있을 때	전형적(4)
	• 위기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드문(3)
	•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드문(2)
	• 문제가 많지 않다고 확인하고 싶을 때	드문(1)
	•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을 침해 받을 때	드문(1)
	• 성장을 위한 긍정적 욕구가 있을 때	드문(1)
상담의 무엇을 통해 내담자는 변화하는가	• 상담자의 온전한 이해, 공감 및 받아들여지는 경험	일반적(8)
	• 자기문제의 실체파악을 통한 인식전환	일반적(7)
	• 실제적인 문제해결력 획득	전형적(4)
	• 감정표현과 정화	드문(3)
	•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꾸준히 옆에서 조력해주는 만남	드문(3)
	• 상담과정 속에서 내담자 체험의 변화	드문(3)
	• 방법이 있다는 희망	드문(1)
	• 내담자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상담자가 훨씬 많이 아는 것	드문(1)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	• 정서적으로 버텨나가게 해주는 동반자 역할	일반적(7)
	• 내담자를 이해, 공감하는 역할	전형적(6)
	• 내담자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다른 조망에서 보도록 하는 역할	전형적(5)
	• 상담자-내담자 관계 안에서 건강한 역할 모델	전형적(4)
	• 내담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움의 핵심을 찾는 전문적 역할	드문(3)
	• 내담자를 이뻐해주는 존재	드문(2)
상담자 역할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	• 상담자의 인격과 특성(창조성, 예술성, 내담자에 대한 애정, 언어화할 수 있는 감각, 삶의 에너지 많음, 자기인생 개념화 능력, 자기관리능력)	일반적(7)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전형적(5)
	• 자기분석, 교육분석	전형적(4)
	• 상담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드문(3)
	• 성공적인 상담경험	드문(3)
	• 상담자로서의 자신감	드문(3)
	• 인생문제에 대한 상식, 통찰력	드문(3)
	• 잘된 사례공부	드문(2)
	• 사례개념화 능력	드문(2)
	• 인내와 끈기	드문(2)
	• 내담자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	드문(2)
	• 대리적 자유연상	드문(1)

www.kci.go.kr

표 1. 상담의 정의에 포함된 내용들(계속)

영역	범주	응답(사례수)
궁극적인 상담의 정의	• 개인의 성장을 조력하는 것	전형적(5)
	•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	전형적(4)
	•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	드문(2)
	• 주체적 자기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드문(2)
	• 행복찾기를 조력하는 것	드문(2)
	• 의논하고 교육하는 것	드문(2)
	• 힘든 과정적 학습	드문(1)
상담이론과 실제와의 차이	• 이론과 실제 차이 없다	전형적(5)
	- 이론을 충분한 소화했다면 차이없다	드문(2)
	- 충분한 상담경험이 쌓이면 차이가 없을 것이다	드문(2)
	• 이론과 실제 차이 있다	드문(3)
	- 생생하고 유연한 이론적용	드문(3)
	- 이론의 충분한 소화여부에 따라 차이있다	드문(2)
	- 충분한 상담경험에 따라 차이있다	드문(2)

"같은 거지, 같지 않으면 이론이 틀린 거지!"(5번 사례)

이에 반해 '이론과 실제 차이가 있다'는 입장도 3사례에서 나타났다. '차이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상담실제에서는 '생생하고 유연한 이론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입장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차이가 있다'고 한 반응이 2사례에서 나타났다. 즉 '이론의 충분한 소화여부에 따라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다'와 '충분한 상담경험에 따라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론 같으면 관점을 제공해 주죠. 상담을 바라보는 관점,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주는데....상담실제는 오히려 다양하고 포괄적인 허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론과 실제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쳐도 메워지지 않는 간극은 항상 존재하고요"(6번 사례)

"상담실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live인데 이론은 라이브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론을 생기를 불어넣어 실제에 가져다 쓰려는 거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하나?, 노고와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7번 사례)

"소화되지 않은 이론이 튀어나와서 상담 과정의 깊이를 덜하게 하는 거죠."(8번 사례)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한국적 상담의 차이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한국적 상담의 차

www.kci.go.kr

이」를 알아본 결과, 상담자 중 6사례는 '차이가 없다'고 답하였고, 2사례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적 상담과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의 차이와 관련없이 8사례 모두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한국적 상담의 차이가 있다면, 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일단 상담이라 함은 상담의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그 위에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든지 기존의 서양에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이 상담에 우리 동양의 것을 더 기여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4번 사례)

"하여튼 이론이 나와야하는데 그 이론에는 뭐 어차피 우리가 한국인들이니까 한국인들이 세상을 인식할 때 어떤 합리주의적인 인식 말고 어떤 인식들을 할 수 있는가. 우리들한테 가용한 대안적인 인식론이 뭔가 생각해 볼 때 불교나 도가적인, 유교적인 거는 조금 뭔가 거시기하고. 그걸 과연,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하는 상담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식하단 말이지, 상담자들이. 우리 상담자들이 그런 철학이나 인식의 관점에서 이런 거를 바라봐 보지를 못했어. 대체 인식론으로, 대체 철학으로 이론화하기 위해서 바라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앞으로 우리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6번 사례)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4사례에서 '의존적이고 답을 구하려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차이'가 나타났으며, 3사례에서는 '눈치봐야 하는 집단문화'을 꼽았다. 그 외에 '존칭, 호칭 사용', '상담이 전문적 활동이라는 인식부족', '정서표현 방식의 차이'가 각각 2사례에서 나타났으며, '가족문화・효(孝)문화', '지방특색

표 2.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한국적 상담의 차이

영역	범주	응답(사례수)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한국적 상담 차이가 있는가?	• 차이가 있다면, 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있으며 연구가 필요	일반적(8)
	• 차이가 없다	전형적(6)
	• 차이가 있다	드문(2)
구체적인 차이내용	• 의존적이고 답을 구하려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차이	전형적(4)
	• 눈치봐야 하는 집단문화	드문(3)
	• 존칭, 호칭 사용	드문(2)
	• 상담이 전문적 활동이라는 인식부족	드문(2)
	• 정서표현 방식차이	드문(2)
	• 가족문화, 효(孝)문화	드문(2)
	• 지방특색 존재	드문(1)
	• 질문방식의 차이	드문(1)
	• 한민족의 한과 서러움이 많음	드문(1)

www.kci.go.kr

존재', '질문방식의 차이', '한민족의 한과 서러움이 많음'을 차이로 든 경우가 각각 1사례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심전심이나 말 안해도 다 알아먹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이나 문화가 제대로 반영이 안된 기법이나 테크닉이 어색한 것 같아요."(8번 사례)

한국에서의 상담의 독특성

연구 참여자들이 파악한 한국에서의 상담과 관련된 독특성을 알아보았다. 특징적인 호소문제」에 대해서, '관계문화로 인한 혼란'이 '일반적(7사례)'으로 나타났는데, 상담자들이 접하는 내담자 호소문제 중에 관계에 경계가 없고,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며, 관계손상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자율성과 독립의 문제로 파악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사랑과 공감을 받고 싶은 욕구의 좌절'문제, '건강한 자부심, 자기신뢰 같은 자존감'문제, '여성의 성역할 갈등, 시댁과의 갈등'문제는 각각 2사례에서 보고되었다. 1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호소문제 유형으로는 '문제에 대한 자기 기여부분의 인식부족', '공격성의 표현문제', 그리고 '교육열'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 상담 장면에서 드러나는 '호소문제에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1사례에서 나타났다.

"말을 해가지고 뭐가 납득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성이 중요한 문화와 우리는 관계문화고 감정이 중요한 문화에 왜 안받아들여지나 하염없이 받고 싶은 그거와"(2번 사례)

"암튼 의존적인게 많아요. 상담자가 다 알아서 해달라, 해결책 내놔라, 당장 어떻게 해야됩니까?, 원샷으로 이거 계속 와야되는거예요?, 몰랐네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게 심리치료예요?, 선생님 말만 몇 마디 했는데 돈 이렇게 내야되는거예요?, 상담자가 전문가고 권위적인 존재로서 자기걸 알아서 해달라, 그런게 참 상대적으로 더 있지 않을까."(3번 사례)

"우리사회가 서구보다는 관계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주 세밀하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 더 있어요."(4번 사례)

특징적인 호소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교육, 설명, 피드백'과 '경청, 정서적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전형적'인 접근법으로 나타났다. '드문'에 해당되는 범주로는 '상담자의 도와주려는 마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허용성', '실존주의적 접근'이 나타났고, 3사례에서는 '사례마다 접근의 차이가 있다'고 했으며, 1사례에서는 '특별히 효과적인 기법이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기법이 구사가 되더라도 그게 자기 안에 이렇게 상담자 체화가 되어서 나가야 정말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기법만 쓰는 건 사실, 기법이 치료하는게 아니다."(2번 사례)

한국에서 내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특히 고려되는 「내담자들이 기대하는 한국 상담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www.kci.go.kr

표 3. 한국에서의 상담의 독특성

영역	범주	응답(사례수)
특징적인 호소문제	• 관계문화로 인한 혼란(경계없음, 분리안됨, 관계손상에 대한 두려움, 자율성과 독립의 문제)	일반적 (7)
	• 사랑, 공감 받고 싶은 욕구의 좌절	드문(2)
	• 건강한 자부심, 자기신뢰 같은 자존감의 문제	드문(2)
	• 여성의 성역할 갈등, 시댁과의 갈등	드문(2)
	• 문제에 대한 자기 기여부분의 인식부족	드문(1)
	• 공격성의 표현문제	드문(1)
	• 교육열	드문(1)
	• 호소문제 별 차이없다	드문(1)
효과적인 접근방법	• 교육, 설명, 피드백	전형적(5)
	• 경청, 정서적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	전형적(4)
	• 사례마다 차이가 있다	드문(3)
	• 상담자의 도와주려는 마음	드문(2)
	•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허용성	드문(1)
	• 실존주의적 접근	드문(1)
	• 특별히 효과적인 기법 없다	드문(1)
내담자들이 기대하는 한국 상담자의 역할	• 도움을 주는 사람 : 멘토, 선생, 조언자	전형적(5)
	•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안전한 의존대상	전형적(5)
	• 문제해결 해주는 전문가	드문(3)
	• 내담자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대상	드문(3)
	• 내담자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사람	드문(2)
	• 하루 일과를 살펴주는 사람	드문(1)
	•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드문(1)
	• 한국 상담자의 역할이 다르지 않음	드문(1)

살펴본 결과, 5사례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도움을 주는 사람(멘토, 선생, 조언자)'이며,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안전한 의존대상'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3사례에서 상담자 역할이 '문제해결해주는 전문가', '내담자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2사례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대상'이며, 1사례에서는 '하루 일과를 살펴주는 사람',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 상담자들의 역할과 '한국 상담자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는 반응도 1사례에서 나타났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든가 난 너무 불행하다든가 뭔가 이런 극단적으로 감정이 에 휘둘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봐주는 상담자를 통해서, 삶이라는게 이렇게 누구든지 이런

www.kci.go.kr

표 4. 한국 상담 발전 방안

영역	범주	응답빈도
구체적인 발전 방안	• 체계적인 교육, 훈련 (수퍼비전, 자기분석, 사례연구)	전형적(5)
	• 효과가 있는 상담능력 함양	전형적(5)
	• 상담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제도적 보완 (보험, 예방상담)	전형적(4)
	•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에서의 상담이론 개발	드문(3)
	• 특성화된 전문영역 개발	드문(3)
	• 상담자들의 경제적 지위확보	드문(3)
	• 상담실무가 겸비된 상담교수 인력 확보	드문(2)

일이 일어날 수 있는거고, 이럴 적에 이거를 버텨나가야 되는거구나. 이런 거를 좀.. 상담자 자체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그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게 아닌가..."(1번 사례)

한국에서의 상담 발전 방안

앞으로 한국에서 상담이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상담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우선 '전형적'인 범주로 나타난 것은 '체계적인 교육, 훈련(수퍼비전, 자기분석, 사례연구)'이 필요하다는 반응과 '효과가 있는 상담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각각 5사례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4사례에서는 '상담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제도적 보완(보험, 예방상담)'을 꼽았다. 이외에도 3사례에서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상담이론 개발', '특성화된 전문영역 개발', '상담자들의 경제적 지위확보'를 꼽았고, 2사례에서는 '상담실무가 겸비된 상담교수 인력 확보'가 한국 상담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상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상담자 자신, 자신이 자신을 상담자로서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상담해도 되나,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남 상담할 처지가 되나, 지 코가 석잔데, 그런 것에 많이 고민하면 그 만큼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대개 경우에, 이것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고요."(3번 사례)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에서 상담실무에 종사하는 상담자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에서 상담실무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상담실무를 담당하는 상담심리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상담자를 찾아온다고 하였으며, 상담과정 중 '상담자의 온전한 이해, 공감 및 받아들여지는 경험'과 '자기문제의 실체파악을 통한 인식전환'을 통해 내담

www.kci.go.kr

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담자는 '정서적으로 버텨나가게 해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이러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상담자 전문성으로 '상담자의 인격과 특성'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담이란 '개인의 성장을 위해 조력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공통적이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개인이 어려움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상담을 시작하고, 상담과정을 통해 현재 부딪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문적인 행위가 상담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담 정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식을 덜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하는 행위가 상담이라고 인식하는 일반인들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금명자, 2002; 금명자, 이장호, 1991; 박재황, 1990). 결국 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상담전문가들의 구체적 직무와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편,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개인의 행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예방상담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상담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심리전문가들은 개인의 고통을 다루는 치료적 관점에서 상담을 정의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두드러지는 행복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 예방적 견해 혹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조력하거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상담의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적 상담접근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공부해온 상담이론과 실무경험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와 '차이가 없다'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상담이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상담실제 경험을 충실히 쌓아간다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은 메울 수 있으며, 상담이론을 실제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담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최해림과 김영혜(2006)가 한국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 분석을 통하여 지적하였듯이, 한국에서는 대학원에서 취득한 상담전공 학점만으로는 대학원 졸업 후 전문상담자로 활동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대학원 교육이 전문상담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상담자 훈련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상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담자 교육 지도와 훈련에 있어서 지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고루 획득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최윤미(2003)의 지적과 같이 한국의 상담자 교육에서 상담이론의 깊이 있는 이해와 실습 훈련의 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상담과 한국적 상담이 다르지 않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 차이가 있다면 '문화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상담에서 독특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은 꾸준히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인

www.kci.go.kr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들(김창대, 1994; 이미선, 1997; 이영희, 1982; 장성숙, 1999; 홍희기, 2002)과 일치하는 의견이지만,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문화 뿐 아니라 더 넓게 한국 내담자들의 삶의 기반을 구성하는 종교 그리고 철학적 사상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상담과 그렇지 않은 상담의 효과성이 차별적인지를 밝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한국에서의 상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존적이고 답을 구하려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눈치 봐야 하는 집단문화'가 있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치료방식은 지시적이거나 권위적, 단기적, 문제중심적이라고 여기는 일반인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나 기대(주은선, 2006), 그리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낙인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태도(유성경, 2005)를 언급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의존적이고 답을 구하려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와 눈치 봐야 하는 집단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상담의 구조화나 오리엔테이션, 내담자와의 신뢰성 있는 관계형성 등에서 서구의 이론에서 제안한 상담과정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맞는 상담과정을 제안하고 기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에서 내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로는 '관계문화로 인한 혼란'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는 '교육, 설명, 피드백을 주는 것'과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기대하는 상담자는 '멘토, 선생, 조언자 같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며,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안전한 의존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관계문화로 인한 혼란이 가장 많다는 연구참여자들의 지적은 다차원적 문화분류에서 한국은 서양과 달리 가족주의, 권위주의, 인정주의와 같은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강영주, 2002; 홍희기, 2002),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장성숙(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멘토나 조언자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안전한 의존대상으로서의 상담자 역할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상담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안전한 의존대상으로서 정서적 지지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을 관리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정서적 인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공감능력과 표현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상담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 교육에서 전문적 상담지식의 훈련뿐만 아니라 정서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 혹은 개발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앞으로 한국에서 상담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상담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참여자들은 제안했다. 이외에 '상담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제도적 보완',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www.kci.go.kr

하는 한국적 상담이론 개발', '특성화된 전문 영역 개발', '상담자들의 경제적 지위확보'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개인분석, 수퍼비전, 사례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주은선, Bae & Orlinsky(2003)는 한국 치료자들이 서구의 치료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개인적 또는 전문적 이유로 '개인치료'를 받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으나 이들 중 상담자집단은 정신과 의사집단에 비해 두 배 정도의 개인치료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상담자들의 자기관리 관련연구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개인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는 경향을 반영(Mahoney, 1991)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상담 수행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상담자의 강화된 훈련과정과 엄격한 자격관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전문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과 논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적 상담모델의 필요성이 타당화 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 문화에 맞는 상담방법에 대한 제안, 한국에서의 인식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서구의 상담과 비교되는 문화적인 연구의 수행 등을 추후 연구과제로 부각시켰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상담심리 박사학위 수료자 및 소지자로 현재 상담교육과 함께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는 전문상담자 모델로 가장 널리 알려진 과학자-실무자 모델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전문가는 과학자와 실무자의 두 역할을 동시에 훈련받고 실천해나가는, 연구자이면서 실무자인 전문가 역할을 지향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상담자의 역할, 내담자 변화의 원동력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낸 질적연구의 수행은 이론적 측면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상담의 실제를 반영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셋째, 상담자의 전문성에서 '인간성과 특성'을 지적한 면도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한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상담자-내담자 관계로 이루어진 특수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상담관련 연구들에서 상담의 구성요소 중 내담자 유형이나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내담자의 유형도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 다양하게 넓어지고,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도 작업동맹이나 공감적 이해와 함께 최근 애착이론의 도입까지 보다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상담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상담자의 경력이나 접근 등에 따라 상담의 효과성을 연결짓는 연구들은 있으나 상담자의 개인의 특성을 중시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다. 면접에 응한 상담자들은 상담자의 특성으로 창의성, 예술성, 내담자에 대한 애정, 언어화할 수 있는 감각, 많은 삶의 에너지, 자기 인생에 대한 개념화 능력, 자기관리 능력 등 다양한 측면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상담자 교육의 프로그램개발이나 훈련에서 상담자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이나 자기관리능력, 자기조절 능력 등 다양한 측면의 교육과 훈련을 겸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언급된 상담자의 특성이 과연 상담의 효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상담자-내담자 관계를 맺는

www.kci.go.kr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멘토, 선생, 조언자와 같은 상담자의 역할', '의존적이고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내담자', '관계문화로 인한 혼란이 많은 한국문화에서의 내담자' 등과 같은 내용들은 한국에서의 상담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한국문화에 맞는 상담과정이나 기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심리전문가가 10명이었고, 이중 2명의 응답은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결과분석에서는 8명의 면접결과를 분석하였다. 면접에 응한 상담심리전문가들이 현재 상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이며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이기는 하나 이들 자료를 전체 상담자들의 응답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혹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상담심리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상담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선호하는 접근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등은 양적연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의 상담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구문화에서 상담을 경험해 본 연구참여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으나,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찾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은 상담심리전문가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상담에 대한 경의로움과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배우고 토의할 수 있는 더할 수 없는 감사한 시간들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를 위해 면접을 허락하고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주신 열 분의 상담심리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강영주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심리적 세대 집단의 권위주의적 성향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금명자 (2002). 청소년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 차이 및 문화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529-546.

금명자, 이장호 (1991). 우리나라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기대, 한국연구, 26(1), 1-18.

김창대 (1994). 상담과학의 문화적 맥락. 청소년 상담연구, 제 2호, 19-41.

박재황 (1990). Relationship of culture and attributional style to anticipation about counseling. 대학상담연구, 1(1), 89-104.

양미진, 이영희 (2006).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20.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5), 617-632.

윤호균 (1983). 삶, 상담, 상담자 - 심리상담에 대한 동양적 접근. 서울: 문지사.

이동식 (1987). 한국인의 주체성과 도. 서울: 일지사.

이동식 (1994).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

www.kci.go.kr

적성출판사.

이미선 (1997). 한국적 상담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동국대학교.

이영희 (1982). 문화와 상담: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한 서론.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 23집, 119-144.

이은순 (1989). 한국문화 종교적 측면에서 본 상담, 이화여자 대학원 논문집(2), 59-74.

이장호, 김정희 (1989). 동양적 상담이론 모형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 5-15.

이형득 (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장성숙 (1999). 한국적 상담의 필요성: 현실역동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19-33.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주은선 (1998). 한국심리치료자들의 치료적 관계-서구 문화권 심리치료자들과의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39-56.

주은선 (2006). 한국에서의 심리치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도전받는 과제들의 예비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5(2), 103-120.

주은선, Bae. S. H., & Orlinsky. D. E. (2003). 한국심리치료자들의 특성과 실문현황-심리치료자들의 성장을 위한 국제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5(3), 423-439.

최윤미 (2003). 한국 상담전문가의 역할과 직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79-200.

최해림 (2002).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05-828.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한규석 (2006). 한국인의 문화심리학이 던지는 도전: 심리학에서 토착심리학의 가치.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16-17.

한국상담심리학회 (2007).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http://krcpa.or.kr/tt/site/ttboard.cgi?db=member_2에서 2007. 5. 26 인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6). 한국청소년 상담원: 새소식 http://kyci.or.kr/news에서 2007. 5. 26 인출.

홍희기 (2002). 한국적 상담이론의 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Azuma, H. (2000). Commentary: Indigenous to what? *Newsletter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cdevelopment*. 26(10).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517-572.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96-205.

Mahoney, M. J. (1991). *Human change process.* New York: Baxic Books.

Murase, T. (1982). Sunao: a central value in Japanese psychothrepy. In A. J. Marsella &

www.kci.go.kr

G..M. White (Eds.). *Cultural conceptions of mental health and therapy* (pp. 317-329). Boston: D. Reidel Publishing.

Stein, H. F. (1983). An anthropological view of family therapy. In D. Bagarozzi, A. Jurich and R. Jackson (Eds.). *Marital and family therapy.*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7. 6. 1
수정원고접수일 : 2007. 7. 25
게 재 결 정 일 : 2007. 8. 2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7, Vol. 19 No. 3, 587-607

A Qualitative Study on Counseling in Korea

Eun-kyoung Lea **Nan-mee Yang** **Eun-kyoung Seo**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efinition and nature of counseling, the differences between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and development plans for counseling in Korea. Eight counselors were interviewed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research Participant reported that counseling is professional activities facilitating personal growth through solving problems of which clients experienced difficulties and agony. And they reported that clients' changes in counseling resulted from experiencing to be understood and accepted by counselors, and through objectively figuring out the problems. Therefore counselor's mature humanity was very important for emotionally holding client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unseling theories and practices and thoroughly understanding theories and wide experiences in counseling practices were necessary. The main character of problems clients appealing in Korea was difficulties of adaptation in relational culture restricting a person. Expected counselors' role and professional elements, efforts necessary for counseling development in Korea, were included.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ounseling in Korea, Culture differences, Qualitative research

www.kci.go.kr